“한국불교 중흥, ‘생활 불교’에 있다”

부산불교실업인회 봉축법요식
김원수 바른법연구원장 법사로
한국불교 중흥 위한 과제 짚어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김원수 바른법연구원장이 부산실업인회 봉축법요식서 법문하고 있다.

“한국불교 중흥 열쇠는 불교의 무한한 보고(寶庫)를 활용하고 생활 가운데 적용하며 실천할 때 가능합니다. 깨달음과 도를 통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을 넘어서서 일상 속에 불교를 어떻게 적용할지 연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원수 바른법연구원장이 한국불교 중흥의 해답은 ‘생활 불교’라고 강조하며 주경야선, 가행정진, 주말출가 등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부산불교실업인회(회장 김윤환)가 5월 10일 서면 영광도서 8층 문화홀 1관에서 봉행한 봉축법요식에서다. 초청법사로 법문을 설한 김원수 법사는 자신의 인생 역경을 해결한 불교와의 만남을 설명하며 미래 한국불교의 방향을 제시했다.

김원수 법사는 “80년 전 암울했던 시대에 태어나 정신과 신체 모두 허약해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때 만난 분이 백성욱 박사셨다”며 “그 덕에 인간 불교, 생활 불교를 알았고 적용해 지금의 건강한 자신이 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성욱 박사는 힘들고 아픈 나를 향해 마음이 안정되면 마음 속 보배를 발견하고 무엇이든 성취하도록 돕는 여의주를 찾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 후 4년간 출가를 했다. 그때 알게 된 것이 ‘출가는 사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역량을 축적해서 돌아오는 것’이며 ‘사회로 돌아오는 출가’도 부처님의 보고를 경험하고 쓸 수 있는 인생의 큰 경험”이라고 강조했다.

김원수 법사는 자신의 불교입문 배경과 수행 과정, 그리고 이를 적용해 깨달음의 결과를 나누며 불자와 출가자 절벽으로 위기에 빠진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부산불교실업인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번 법회는 부산불교실업인회가 주최한 봉축 특별법회다. 현재 부산불교실업인회는 전국의 고승 대덕 초청 법석을 열고 있으며, 올해 봉축법요식을 맞아 ‘금강경 대가 김원수 법사 초청 특별법회’를 열었다.

김윤환 부산불교실업인회장은 “뭇 중생에게 자비와 지혜의 광명을 밝히신 부처님오신날을 찬탄과 환희심으로 봉축한다”면서 “본회 봉축법요식 법사로 귀한 걸음을 해주신 김원수 박사님과 바른법연구원 회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법사님 법문 잘 경청하시고 신행에 지침이 되시길 바란다”고 봉축사를 전했다.

부산불교실업인회는 지난 1991년 결성돼 실업인 및 거사들의 모임으로 활발한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기적으로 선지식 초청법회를 봉행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청해 듣고 신행에 앞장서고 있다.

통도사 ‘봉축위문금’ 8730만원 나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서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5월 15일 설법전에서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및 봉축위문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통도사는 이웃을 위한 위문금 총 8730만원을 전달했다. 지원금은 통도사자비원 전문요양원과 양산 및 인근 지역 25개 사회복지시설, 하북면 경로당 독거 어르신, 저소득 가정 청소년, 군법당 등에 전달됐다.〈사진〉

주지 현덕 스님은 “올해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함께 봉축하고 기쁨과 나눔을 전할 수 있어 보람되다”며 “모두를 나 자신으로 여기고 사랑하면서 존중하고 부처님처럼 대한다면 하루하루가 부처님오신날이자 환희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요식에는 주지 현덕 스님을 비롯해 통도사 승가대중과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 나동연 양산시장, 윤영석·김태호 국회의원, 이종희 양산시의회 의장 등이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처님오신날, 어르신 행복하시길”

견강암, 어울림한마당 잔치



자비나눔 실천도량 견강암(주지 향공 스님)이 5월 15일 경내에서 ‘제3회 어르신 초청 주민어울림한마당 잔치’를 개최했다.〈사진〉 어울림한마당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을 초청하고 잔치를 열어 함께 축하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1000여 명의 지역민이 자리한 축제에서 견강암은 중·고등학교 학생 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은 20만원씩 총 120만원이다.

주지 향공 스님은 “여러분이 바로 부처님이고 여러분에게 나누는 모든 공양이 부처님께 올리는 것”이라며 “봉축을 맞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했다.

축제에는 주지 향공 스님을 비롯해 장제원 국회의원, 김대식 국회의원 당선인, 조병길 사상구청장 등이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지역사회 기부로 부처님오신날 봉축

삼광사, 쌀 1만㎏ 등 자비나눔



천태종 부산 삼광사(주지 영제 스님)가 5월 15일 경내 지관전에서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봉행하고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삼광사는 자비의 쌀 1만㎏과 빵·음료 1만 세트를 부산진구청과 부산진구장애인협회, 복지시설, 저소득가정에 후원했다.〈사진〉

주지 영제 스님은 법어를 통해 “어두운 곳에 세상을 밝히는 자비의 빛이 있고 번뇌 가운데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며 “부처님께서 열어놓은 길을 따라 걸어가면 그곳에 자신의 본성인 부처가 기다리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수행하자”고 당부했다.

법요식에는 주지 영제 스님을 비롯해 이준승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정성국·박성훈 국회의원 당선인을 비롯해 1만여 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홍법사, 현충일 맞아 호국정신 계승한다

34회 허공마지홍법바라밀재
백일장 · 사생대회 등 행사도
“호국의 숭고한 정신 기린다”


홍법사는 6월 6일 경내에서 ‘제34회 허공마지홍법바라밀재 및 제12회 호국의 숨결대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행사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호국영령을 위한 추모법석을 비롯해 청소년과 함께 호국정신을 기리는 행사가 진행된다.

부산 홍법사는 6월 6일 경내 일원에서 ‘제34회 허공마지홍법바라밀재 및 제12회 호국의 숨결대회’를 개최한다.

허공마지홍법바라밀재는 홍법사가 매년 주최하는 호국영령 천도의식으로 창건주 하도명화 보살의 유지를 이어 봉행하고 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순국선열을 위한 기도 및 호국 영웅(해외 참전용사) 초청 의식이 펼쳐진다. 아울러 창건주 하도명화 보살의 추모재를 봉행해 불교홍포 및 교육 사업에 앞장선 창건주의 정신을 기념한다.

호국의 숨결대회는 청소년 호국 문화예술 전국대회이며 대회 주제는 호국보훈과 나라사랑, 통일 관련으로 당일 현장 발표한다. 참가부분은 그리기, 글짓기, 서예이며 대상은 전국의 유치부, 초중고 학생 및 일반부다.

행사 당일 도화지와 원고지, 화선지는 주최 측에서 배부하며 출품된 작품은 반환되지 않는다. 당일 작품 제출 시 봉사시간을 인정받으며 결과는 6월 24일 홈페이지(www.hoguk.org)에 공지될 예정이다. 시상은 교육부장관상, 통일부장관상, 부산시장상, 부산교육감상 등 다수다.

참가 희망자는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참가자는 현장 확인을 위해 행사 시작 1시간 전까지 대회장에 입장해야 한다. 대회 개회식은 오후 1시다.

홍법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자리를 마련한다”며 “호국정신은 나라사랑의 의미를 새롭게 일깨우고,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한 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051-508-3471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